

모든 학생을 주도적 독자(讀者)로 키우기 위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 교육과정 연계 독서수업 강화를 통한 독서 활동의 일상화
- 독서교육 집중 학년(초3~4, 중1, 고1)을 지정, 집중적 독서가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교육 지원
- 수업 중심 독서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체제 강화
-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 조성
- 【관련 국정과제】 99.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기초 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2일(목)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주도적 독자로 성장하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업과 연계한 독서 활동의 일상화

수업과 독서의 연계를 강화한다. 수업 중 해당 교과 관련 도서를 읽고 탐구·토론 등 체계적인 독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의 독서 연계 교과수업 교수·학습모델을 공모·발굴한다. 발굴한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서로*'에 과목 및 성취기준별로 탑재한다.

* read365.edunet.net,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

또한,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통해 우수모델을 확산한다. 기존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수업 중심 독서교육 모델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매년 40개교를 지정·운영한다. 선도학교는 교육과정 내 독서 기반 수업 및 교과 연계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16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지원받는다.

② ‘독서교육 집중 학년’ 운영

초3~4, 중1, 고1 시기를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27~) 이와 관련해 교사가 학생의 독서 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독서역량 진단 도구 및 독서 상담 도구를 학교급별로 개발한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 개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독서지도 도움자료’(온라인 콘텐츠, 수준별 보조 읽기 자료 등)도 개발·안내한다.(’27~)

< ‘독서교육 집중 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 (초3~4) 독서 저흥미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학습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 보급 (’26. 개발 → ’27. 보급)
- ▶ (중1) 자유학기 주제선택·진로탐색 활동에 독서를 중점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보급(’26. 개발 → ’27. 보급), 토론·글쓰기 중심의 학생 동아리 지원 확대(’27. 500개교 → ’30. 전체 중학교)
- ▶ (고1) 관심 분야 도서를 읽으며 진로를 탐색하는 온라인 ‘진로독서 멘토링’, 찾아가는 독서·인문교육 (농어촌·소규모학교 우선, ’26~)

③ 학교 독서교육 지원 강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접하도록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운동’ 등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학교를 올해 초·중·고 1,000개교로 시작해, 2030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플랫폼(독서로DLS)을 고도화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도서검색 기능을 도입한다.(~’28) 또한, 학생이 ‘독서로’에 기재한 독서 활동을 나이스(NEIS)와 연동하여, 학교생활기록부(독서활동상황란)에 자동 기재되도록 추진한다.(’27~) 또한, 방학 기간에도 독서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방학 중 모든 학생에게 월 5권 이내의 전자책 대여도 지원한다.(’27~)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도 적극 협력한다. 학부모용 ‘독서지도 도움자료’를 개발·제공하는 한편, 학부모가 자녀의 독서이력을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독서로’의 기능을 개선한다.(~’28) 또한, ‘독서로’와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연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독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도서 추천을 정교화한다. 이와 함께 인근 학교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간 보유 자료를 서로 검색·교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도서관 자료의 활용도를 높인다.(~'28)

이 밖에도 최신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학교도서관 운영 업무를 지원한다. 더불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매년 독서교육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2027년부터 관리자 연수도 추진한다.

④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진흥 책무 조항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학교도서관 설립·운영 사항에 집중된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독서교육 전반의 근거 법령으로 개정하기 위한 정책연구 착수, ▲독서교육이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 개정의 추진, ▲실효성 있는 독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독서교육 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가 책임감 있게 독서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수요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정보공시 항목에 독서교육 관련 지표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매체의 범람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독서 본연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은 독서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하며, “책 읽는 기쁨이 학생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 | | | |
|-------|------------------|-----|----|--------------------------|
| 담당 부서 |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 | 책임자 | 과장 | 황현정 (044-203-6612) |
| | | 담당자 | | 교육연구사 김성동 (044-203-6988) |
| | | | | 교육연구사 이은경 (044-203-6997) |

